

# 마음에 대한 여러 해석이 다양한 수행체계 원인

## 고영섭 교수 '문학·사학·철학' 15호에 '마음 고찰' 발표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一切唯心造)'고 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나'라고 여기기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등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마음을 두고 종교와 철학은 수많은 이론을 풀어냈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은 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거나 없으면 의식이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구성된 뇌에 전기적 소통작용의 결과가 마음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

유식불교에서는 '인식이 바뀔 후에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轉識得智)'고 말한다. 미혹의 윤회를 벗어나 깨침의 증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인문학계간지 <문학·사학·철학> 제15호에 '마음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구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에서는 인식의 기반을 심·의·식으로 설명한다. 심의식은 각각 제8식 아뢰야식(지장의식)과 제7식 말라식(사량의식), 제6식 요별경식(분별의식)으로 설명된다.

범어로 마음을 떨어져 있는 대상을 사고하는 주제와 작용을 가리키는 지따(citta)와 사고작용을 갖추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 흐리다야(hridaya)의 두가지 어원을 갖는다. 고 교수는 "인도인들은 마음을 심리작용의 주제로서 심왕법(心王法, 세계를 왕과 같이 지배·통솔하는 존재)과 심장 혹은 염통과 같이 작용을 갖추지 않은 마음으로 나뉘었다"면서 "마음을 두 언어로 표현한 인도문화의 정신적 경향과 이들 모두를 '마음'이라 표현한 중국문화의 '즉물적 성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근본불교에서 마음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을 내용으로 했다. 고영섭 교수는 "조기경전에서는 수행과 해탈에 장애되는 번뇌가 마음에 유입된다고 설명했다"며 "번뇌와 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불교의 다양한 수행체계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존재의 분석을 통해 윤회의 주제를 파악하려 했던 부파불교에서는 어땠을까? 고영섭 교수는 "부파불

교의 마음에 대한 답론도 번뇌설과 함께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특히 번뇌가 마음을 오염시키는 심리적 요소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며 "번뇌는 수면(睡眠)의 개념으로 마음을 괴롭히거나 오염시키는 여러 심리적 요소 가운데 상위개념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을 '자성정정심(自性淨心)'이라 했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마음은 "미혹한 현실세계는 오직 마음의 소산일 뿐, 마음 바깥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三界唯一心 心外無別法)"는 화엄교설 등으로 접목됐다. 고영섭 교수는 "식(識)사상이 곧 심(心)사상으로 전개됐다"면서 "일심(一心) 사상은 중국 선승들에게 수용돼 실천적으로는 무심(無心)의 사상으로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반야경> 중심의 삼론종에서는 마음을 중도(中道)에 대응시켰고, 천태종에서는 마음을 공가중(空假中) 삼제(三諦)의 중제(中諦)에 상응시켰다. 열반종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하고, 화엄종은 "삼계는 모두 허망하며 다만 일심이 만들어낸다"는 구절에 집중해 유심파(唯

심)와 일심(一心)을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마음을 일정한 대상과 결부시켜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몰아적인 명지(明知)를 얻는 인도의 명상법을 중국불교 초기 수행자들 역시 수용했다"고 말했다.

달마 이후 중국 선종은 마음의 집착을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 교수는 "무심(無心)은 마음에 대한 망상과 집착을 부정하지만 마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선종이 내세우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은 물론 지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즉심시불(即心是佛) 등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고승들 역시 마음을 중요시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 개념을 새롭게 변용시켰다. 고영섭 교수는 "원효는 갈라진 주장들을 하나로 모아 일심으로 회통시켰다"며 "원효의 사상적 바탕인 일심은 부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자 넓은 마음이며, 대비심의 구체적 표현"이라 말했다.

지눌도 <수심결>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먼저 조사의 도로써 자기 마음(自心)의 본래 묘함(妙)을 알아 문자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고 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원효의 일심(一心), 지눌의 진심(真心), 혜심의 무심(無心)에 이어 태고의 자심(自心)을 내세웠다. 나옹의 "출 마음이 없다(無心可用)"는 말이나, 휴정의 일물(一物)도 무심의 변용이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문학·사학·철학> 제15호에서 '마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에서의 마음에 대해 논했다.



야 한다"고 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원효의 일심(一心), 지눌의 진심(真心), 혜심의 무심(無心)에 이어 태고의 자심(自心)을 내세웠다. 나옹의 "출 마음이 없다(無心可用)"는 말이나, 휴정의 일물(一物)도 무심의 변용이었다.

근대 한국불교의 흥중조 경허 역시 '마음의 근원을 비추어 안다(照了心源)'거나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 비추다(返照心源)'라고 해 조심(照心)을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조심은 비추는 마음이기도 하고 마음을 비추는 것이기도 하다"

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고 교수는 "용성은 마음을 깨달음(覺)으로 변용했고, 만해는 유심(惟心)을 성철은 문심(頓心)을 강조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불교사상가들은 '마음'을 자기화해 총합한 사상적 지평도를 그려냈다"고 주장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 학진 등재학술지로

인도철학회(회장 법산)가 발행하는 <인도철학>



>(사진)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재창, 이하 학진)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구립 30일 발표된 학진의 2008년 학술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도철학>이 등재학술지로 승격된 것을 비롯해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의 <정토학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됐다. 등재후보학술지였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식)의 <불교학보>와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의 <한국선학>이 각각 등재후보 1차 심사를 통과, 등재학술지 선정을 위해서는 2009년 2차 심사를 남겼다.

<인도철학>의 신규 등재로 불교학계에는 <보조사상> <불교학연구> <한국불교학> <강좌미술사>와 함께 등재학술지가 5개로 늘어났다.

조동섭 기자

## 건축불사 준비부터 완공까지

### 조계종 문화부 '건축불사 Q&A' 발간

불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 중에 문화재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과 법회활동을 위한 공간을 짓고 수리하는 건축불사 과정에서 생길 애로사항과 궁금증들에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1월 6일 <건축불사 Q&A>를 발간했다. 책은 건축불사의 준비단계, 진행단계 그

리고 불사이후 준공 및 관리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건축불사 순서에 맞춰 관계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수록했다.

특히 건축불사 시행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을 질문과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분회 행정관은 "본 책자는 사찰의 건축불사 현장에서 하나의 안내

서와 같은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불사를 지양하고, 사찰문화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11-1771

조동섭 기자



## "보광사 관음상 복장전적 밀교사상 보여"

###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 주장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521호)은 13세기 전반의 인쇄사와 밀교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질 및 판각술은 고려인쇄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청)은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수경)가 최근 발간한 <성보> 제10호에서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를 발표했다.

보광사 목조관음좌상 복장유물은 문화재청(청장 이강무)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법하)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위해 2007년 5월 경북 서부지역 조사 시 발견됐다.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적류 9종 193점을 소개한 서병패 위원은 "복원인दार나경"은 1007년 종지사판으로 판각된 상태로 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패 위원은 "<법서총지집>은 1150년 평양

광제포에서 사원 선사가 교정해 개판한 기록이 있다"며 "서지학, 다라니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보> 제10호에는 안병찬 교수(경주대)의 '단청 뇌록가칠 안료의 특성과 색상재현 연구'와 최태선 교수(중앙대)·이인숙 연구원(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회를 통해 본 낙산사의 변천과정', 오출세 교수(동국대)의 '불전사물의 시세계 고찰' 등이 게재됐다. (02)2011-1778

조동섭 기자

## 천태사교의 강좌

### 선교경전연구회

선교경전연구회(회장 법경)는 세명 스님(천태학 박사)을 강사로 초빙해 1월 15일부터 천태사교의 강좌를 개강한다.

6개월 과정의 강좌는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6시 열린다. 비구·비구니와 불교대학 이상을 졸업한 재가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 25만원. (02)735-1053

조동섭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69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7일개강

## 2009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4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학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영(숭경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창석(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숭경대교수) · 김형준(동산대교수) · 정업스님(숭경대교수) · 보각스님(숭경대교수) · 박종(동산대교수) ·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최중석(금강대교수) · 김호규(동국대교수) · 윤연수(문화재단전문위원) · 종석스님(숭경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종(동산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선반) (100명)(50명)(50명) 불교다도학과(3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30명)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요가심리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9년 1월 1일~ 2009년 2월 6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통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 4. 입학일시 불교학과 2009년 2월 7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대학) 개강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심리학과 : 2009년 3월 3, 4, 5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추천, 상가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사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